

정부3.0 농업·농촌 국민체감형 HOT DATA 8선, 대망의 1위는?

고객홍보팀





축산물이력제 및 이력정보 활용 사례 소개

12월 5일 아침,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 세종점의 정육 코너에서 이채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정부3.0 농업·농촌 '국민체감형 HOTA DATA 8선' 현장설명회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을 비롯한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의 관계자들,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취재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까지 '국민체감형 HOTA DATA 8선'의 발표와 시연에 높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았다. 덕분에 정육 코너는 쉼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에 번쩍번쩍했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 발표된 정부3.0 농업·농촌 '국민체감형 HOTA DATA'의 선정은 정부3.0에 근거해 농식품 분야에서 생산된 다양한 공공 정보를 민간에 호보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농업 관련 기관에서 국민에 개방해 제공하고 있는 111개 '국민체감형' 데이터의 이용현황을 분석했다. 이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 인기가 높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접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8종의 최종 공공 데이터를 선발했다.

선정 결과 1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의 축산물 이력정보가 차지했다. 축산물이력정보는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해 국내산 소·돼지의 출생부터 도축·유통단계의 모든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축산물이력제 또는 안심장보거나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이력정보를 개방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월평균 조회수가 35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위 이하 여타 공공데이터들의 이용현황이 100만 건을 못 미치는 것에 비교해 괄목할 만한 수치다.

2위로는 산지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농산물 경락정보, 소비자 조사 가격 정보, 관측 및 시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산물가격정보(www.okclab.com)가 선정됐다. 농산물가격정보는 월평균 조회수 56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3위에는 월평균 조회수가 49만 건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정보(www.agrix.go.kr)가 이름을 올렸다. 농업경영체정보를 통하면 농업인이 스스로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성별·연령별·노지·시설·축산 품목에 따라 시도·시군·읍면동별 다양한 농업경영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정보(www.returnfarm.com), 한국농어촌공사농지정보(www.fbo.or.kr),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정보(www.ananimal.g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정보(www.eat.c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텃밭재배정보(modunong.okclab.com)가 '국민체감형 HOTA DATA 8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QR코드 이용 이력정보 조회 시연

이날 현장에서는 1위를 차지한 축산물이력정보의 활용 사례에 대한 축평원의 소개와 판매장에서 이력정보를 통해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하는 시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력정보 시연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기를 살 때 조회해 보는 것을 넘어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판매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더 믿음직스러웠다.

시연 과정을 되짚어 보면 국내산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판매장에 입고되면 이력번호를 스캔하는데, 이때 자동으로 입고된 축산물의 등급, 품종, 성별, 부위 등 다양한 정보가 저울에 입력된다. 그리고 입력된 이력정보는 소비자가 해당 축산물을 구입했을 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라벨에 QR코드와 이력번호 등으로 인쇄된다. 이렇게 인쇄된 것을 제품 포장용기에 부착하면 소비자가 보고 조회해 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QR코드 스캔을 통한 이력정보 조회를, 백종호 축평원장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조회를 해보였다. 특히,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좀 더 손쉽게 조회해 보일 수 있었다.

이력정보 조회 시연 후 이준원 차관은 “이제는 데이터로 농업을 바꾸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농업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향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업 관련 모든 데이터를 옥담(www.okdab.com)으로 일원화하여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축산물이력제 앱 이용 이력정보 조회 시연

